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마포구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도화
수상내역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장려상
작가	김지현
공모분야	창작이야기
장르	단편소설
소재	도화동에 얹힌 도화낭자 이야기
기획의도	도화동에 얹힌 도화낭자이야기를 통해서 그 설화를 알리고 도화동의 이름의 유래, 도화동의 아름다움을 알림.
스토리 구성 (Plot)	<p>마포에는 도화동이라는 곳이 있다. 그 곳에는 도화낭자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조선, 마포 나루터가 주요 교통지 역할 하던 때에 그 마을에 도화낭자라는 빼어난 미인이 살았다. 그 여인이 미모와 성품은 가히 최고라 하여 온 조선 땅에 소문이 난다. 그 소문은 더욱 커져 궁중에 까지 들어가는데, 마침 타국에서 와 있던 사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사신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날 소문으로 들었던 도화낭자를 한 번 보고 가려고 마을에 들린다. 사신은 마을에서 도화낭자의 빼어난 미모와 마을 사람들로 부터 들은 도화낭자의 뛰어난 성품에 크게 감동하고 제 나라로 돌아간다. 자신의 나라의 황제에게 도화낭자이야기를 전하였더니 황제가 그 여인을 황후로 맞기를 원하여 사신이 도화를 데리러 온다. 도화와 그의 아버지 김 영감은 애달픈 이별을 하고 사신은 김 영감에게 복숭아씨를 주고 간다. 김 영감은 도화를 그리며 복사나무를 정성스럽게 키우다 세상을 떠난다. 마을 사람들은 김 영감과 도화를 기리며 온 마을에 복사나무를 심고 그로 인해 마을은 '복사골'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도화동의 옛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마포나루 곳을 행할 때 도화를 종이배에 담아 작은 의식을 치른다.</p>

도화(桃花)

온 산천에는 초록이 만연하고 그 초록들 사이로 복사꽃이 휘날린다. 강나루를 끼고 있는 마을에는 시원한 강바람을 타고 초록향내가 물씬 풍겼다. 도화는 이른 아침 마당을 쓸고 아침준비를 시작했다. 도화는 여기저기서 꽃내음이 풍기고 아침 해가 떠오르려 기지개를 펴는 이때가 가장 좋았다. 코끝을 간질이는 바람은 상쾌했고, 부엌에 들어서면 어머니냄새가 나는 듯 했다. 매일 아침 술에 밥을 얹히며 어머니를 떠올려보곤 했다. 어머니가 썼을 술과 식기들을 매만지며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립지는 않았으나 도화는 항상 어머니를 가슴 한 켠에 두고 생각했다. 특히 끼니를 준비하러 부엌에 들어올 때면 어머니의 형상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다. 도화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침을 준비했다.

“아버지 진지 드시어요.”

김 영감이 이부자리를 치우고 의복을 갖추니 문 밖에서 도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거라, 하니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깔끔하게 차려진 소반을 들고 도화가 들어왔다. 밥상을 내려놓고 도화가 문안 인사를 올리자 김 영감이 인자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단출한 아침식사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온 방안을 메웠다. 김 영감을 마주하고 앉은 도화가 다소곳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나 밥을 씹는 소리도 일절 내지 않고 얄전하게 식사를 했다. 김 영감은 혹여나 도화가 어미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진 않을까 애지중지 키우면서도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가르쳤다. 김 영감은 마을 사람으로부터 도화의 성숙하고 조신함에 대해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렸다. 늦둥이로 도화를 얻자마자 처가 세상을 떠나고 저마저도 나이가 많아 도화에게 해줄 것이라곤 세상을 살아가는 예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했다. 꽃같은 어린 딸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여나 상처를 받진 않을까, 김 영감은 항상 노심초사했다. 다행히 도화는 예쁘게 자라주었고 온 마을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김 영감은 그런 도화를 볼 때면 도화를 가졌을 때 꾸었던 태몽이 생생히 떠올랐다.

봄으로 넘어가려는 길목에 선 어느 겨울날, 늦은 겨울바람이 마지막 기운을 다 쏟아내는 듯 그 어느 때보다 바람이 매서웠다. 만삭의 배를 안고 누운 처가 창호지를 뚫을 듯한 기세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달달 떨고 있었다. 김 영감은 문을 단단히 닫아걸고 자리에 누웠다.

사방에 하얀 잎들이 흩날렸다. 태양빛이 보이지 않는데도 눈이 부시도록 세상이 환했다. 하얀 꽃잎들이 김 영감의 머리 위를 스치고 소맷자락을 스리고 어깨위에 내려앉았다. 김 영감은 손바닥을 펼쳐 꽃잎들을 손 안에 담으려 애썼다. 새하얀 꽃잎 한 장을 손바닥 위에 받아보니 한 귀퉁이가 희미하게 연분홍을 띄고 있었다. 꽃잎이 하늘하늘 날아올라 허공을 돌았다. 김 영감이 그 꽃잎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저 멀리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서 있었다. 김 영감은 자신의 몇 십 배는 될 듯한 거대한 나무의 형상에 그 자리에 박히듯 얼어버렸다.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버린 꽃잎들은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휘날리고 있었다. 나무 가지들에 하얗고, 연분홍빛의 꽃잎 다발들 사이로 탐스런 알알들이 박혀있었다. 복숭아였다. 김 영감은 나무 밑으로 가 연분홍의 토실토실한 복숭아 엉덩이들을 올려다보았다. 김 영감은 넋을 놓고 그 탐

스런 알들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 때, 김 영감의 품으로 아이 머리통만한 복숭아 한 알이 쑥, 하고 내쳐 떨어졌다. 김 영감은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그 복숭아를 받아 안았다. 복숭아의 달큰한 향내가 콧속으로 들어와 온 전신을 이완시키는 듯 했다.

김 영감은 서서히 꿈에서 돌아왔다. 정신이 점점 맑아지고 실눈을 뜨니 어느새 아침이 밝아 있었다. 생생했던 복숭아 향내가 아직도 콧속을 휘젓고 있는 듯 했다. 아직 잠들어있는 처의 만삭인 배를 만져보았다. 꿈속에서 자신의 품으로 쑥 떨어졌던 복숭아 알이 들어있는 듯 했다.

김 영감은 두 달 뒤 도화가 태어나자 그 꿈이 도화를 뜻하는 태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화는 정말 그 꿈속의 복숭아 마냥 새하얗고 토실한 피부에 양 볼이 연분홍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김 영감은 아이의 이름을 도화(桃花)라고 지었고 마을 사람 누구나가 도화를 보면 복숭아를 떠올렸다.

그 해 겨울, 처가 세상을 떠났다. 늦은 나이에 한 출산이 몸을 많이 상하게 한 것이었다. 김 영감은 홀로 조그마한 도화를 안아두고 생각했다. 부모가 다 주지 못 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서 맘껏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빌었다. 복숭아꽃처럼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할 향기를 가진 아이로 자라도록 빌고 또 빌었다.

“아버지 입맛이 없으세요?”

김 영감은 다소곳이 앉아 걱정스런 눈으로 쳐다보는 도화를 보며 옛 시절이 아득히 스쳐지나갔다. 도화는 김 영감의 바람대로 사랑스런 아이로 자라주었다. 김 영감은 어미의 몫까지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세상의 도리와 예에 대해 가르쳤다. 그것들이 선비인 아버지로서 도화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생각했다.

도화는 아침상을 치우고 나갈 채비를 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생각을 하니 들떴다. 도화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책 속의 이야기,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도화는 자연스레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로 인사의 중요성을 배우고 사람간의 도리를 배웠다. 도화는 마을 사람들이 좋았고 나루터에서 일을 돕는 것이 좋았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다. 김 영감의 우려와 달리 일의 고단함보다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는 것의 즐거움이 도화에게 큰 힘을 주었다.

타지에서 오는 상인들은 마포에 올 때면 도화 덕분에 마음이 맑아졌다. 고운 아이가 험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호트러지는 법이 없고, 언제나 밝고 상냥한 말투로 예를 갖추어 사람을 대했다. 백설기같이 하얀 피부에 붉은 발강게 홍조를 띄고 웃음을 지을 때면 눈이 초승달마냥 감기는 것이 참으로 고왔다. 여러 각지를 다니는 상인들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화만큼의 출중한 미인을 본 적이 없었다. 낡은 옷을 걸치고 있지만 단정하고 깔끔하며 그 자태는 어느 양반규수와 맞먹어도 뒤지지 않았으며 상냥하고 온화한 성격은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예를 갖춘 말투는 듣는 사람을 마치 지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듯 했고, 저보다 어린 이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법이 없었다. 힘든 일도 항상 제가 먼저 나서서 하려했고 처음 보는 타지 사람들에게도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고 도와주었다.

마포는 조선 전역의 온갖 배들이 거쳐 가는 곳이었다. 한양과 각 지역을 수로로 이어주는 주요 나루터로 항상 상인들과 타지에서 오고가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활기를 띄고 문전성시를 이뤘다. 각 지방 사람들은 뱃길을 따라 한강으로 흘러들어와 마포나루를 거쳐 한양으로 들어섰으

며, 각 지역에서 오는 산물의 하역과 저장을 담당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포나루로 곡식을 실어 날랐고, 황해에서 잡아온 새우며 조기 등 갖가지 수산물들도 마포나루를 통해 각 지역으로 옮겨갔다. 덕분에 온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포를 들고 나가며 도화를 만났고 그를 보며 감탄했다. 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몇 마디라도 이야기를 나눠본 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마을에 가 전했다. 도화의 미모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외모이기도 했거니와 나루터의 험한 일을 하면서 그의 성품이 더욱 빛을 발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에 가 마포에 사는 절세가인에 대해 떠들었고 곧 그 소문은 마포에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을에 무섭도록 널리 퍼져나갔다.

특히 한양에는 이미 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입을 타고 돌고 있었다. 도화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 그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는데 여인의 외모가 절정인 나이에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루터에서 일을 돕는 것이 도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양 전역에는 도화에 대해 떠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곧 그 무성한 소문들은 궁중에까지 가 닿았다. 궁중 내에서도 남녀 할 것 없이 도화의 소문에 대해 입을 옮겼다. 여인들은 그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 했고 사내들은 출중한 외모에 대해 떠들었다. 그것은 곧 조선에 와 있던 타국의 사신의 귀에 까지 들어갔다.

사신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였으면 신분이 높지도 않은 평범한 여인이 궁중까지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인가 몹시 궁금했다. 듣자하니 그 외모도 외모지만 성품 또한 일품이라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했다. 사신은 제 나라에서 만나보았던 여럿 가인들을 떠올렸다. 과연 이 나라의 미인 또한 그네들과 견줄 만 한 수준인가 궁금증을 일으켰다. 사신은 통역관에게 그 여인에 대해 떠도는 소문들을 상세히 물으며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았다.

이틀 후 귀국 날, 사신은 제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도화를 꼭 한 번 보고 싶었다. 얼마나 귀한 미모이기에 이토록 떠들썩하게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마침 그 여인이 사는 곳에 큰 나루터가 있다하여 그곳에서 배를 띄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신은 통역관에게 마포의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돌아갈 것이라 전하고 준비토록 했다.

사신은 돌아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임금에게 인사를 올린 후 말에 올라탔다. 마포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웅장한 산맥을 따라 내려와 한강과 만나는 그 끝자락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은 활기찬 곳이었다. 마을은 산을 등지고 앞에는 강이 흘러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맴돌았고 바람을 따라 향긋한 꽃향기가 마을을 감싸 돌았다. 쾌청한 마을을 거쳐 나루터로 나갔다. 이른 시간인데도 나루터는 바쁘게 북적였다. 사신은 통역관에게 마포에서 하루를 묵어가겠다고 전했다. 나루터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고 짐을 풀고 나와 사신은 통역관을 대동하고 다시 나루터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한데 섞여 짐을 내리고, 분류하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나루터 한 쪽에서는 장터가 벌어졌다.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갖가지 물건들을 내놓았고 동네 아낙들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물건들을 구경하고 값을 쳐줬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신은 도화를 찾았다. 궁중까지 그 미모가 알려질 정도라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그런 이야기가 소문만 무성해져 과하게 전해진 것이라 생각했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한참을 헤매어도 출중한 미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신은 크게 실망했다. 그저 소문이었던 것뿐인가. 아니면 이 곳 사람들은 우리네와는 눈이 달라 미인이라 칭하는 것의 기준이 다른 것인가. 사신은 낙담하여 하루를 머무

르지 않고 그저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다. 아쉬운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저 멀리서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려왔다. 여럿이 모여 앞 다투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화야 어르신은 안녕하시냐.”

“예 아저씨. 항상 신경써주신 덕분이지요.”

백옥같이 새하얀 얼굴에 발그스레 홍조를 띤 아담한 여인이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었다. 새까만 머리칼은 곱게 빗어 넘겨 댕기로 흘쳐 묶고, 단정하게 차려 입었으나 조금 낡은 듯 보이는 치마저고리는 오히려 여인의 미모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가늘고 긴 눈썹은 선명하고 눈매가 길고 눈망울이 검고 크며 웃을 땀 눈이 초승달마냥 휘어져 눈웃음을 지었다. 가히 절세가인이자 할 만 했다. 사신은 제 나라에 유명한 절세가인들을 여럿 보았으나 이처럼 눈이 부신 미모는 처음 보았다. 얼굴은 이슬 맺힌 과일마냥 생기가 돌았고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가 웃음기가 서린 상이었다. 사신은 저 여인의 미모는 그에 대해 떠도는 그 어떤 소문들도 여인을 표현하기엔 한참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신은 통역관에게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었다.

“이보오, 저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도화 말씀입니까?”

“저이가 소문이 무성한 그 여인이 맞는가?”

“도화에 대해 입말들이 많이 도는 것이 사실입죠.”

통역관은 지나가는 마을 사내를 붙잡고 이것저것을 묻고는 사신에게 전해주었다. 사신은 한 눈에 보아도 저 여인이 그 소문속의 사람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도화(桃花)라...’

사신은 도화의 이름을 되 뇌이며 그 미모가 복사꽃을 정말 닮았다고 생각했다. 사신은 사람들 틈 속에서 일을 거드는 도화를 보며 준비해온 세필 붓과 종이를 꺼내들었다. 한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화를 유심히 보며 얼굴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제 나라에서도 여러 가인들의 얼굴을 그렸고, 우수한 그림 실력으로 이름이 자자한 그로서도 도화의 미모를 모두 담아내기엔 그 능력이 한참 모자랐다. 사신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도화는 한창 분주했다. 쉴 새 없이 여기 저기를 오가며 일손을 도왔다. 여린 몸으로 힘들어하는 내색도 없이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답했다. 사신은 그림을 그리는 내내 감탄했다. 도화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신비로운 느낌을 도저히 그림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었다. 사신이 도화에게 폭 빠져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강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나루터는 이제 마을 사람들만이 짐을 정리하고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도화야 얼른 들어가 보거라. 어르신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냐.”

“예 아저씨, 오늘도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뒷정리를 돕던 도화가 마을로 돌아가려 발길을 돌렸다. 사신은 서둘러 그림을 챙기고 도화를 따라 나섰다. 열 걸음 정도 뒤에서 조용히 도화를 따랐다. 도화는 마을에 들어서서도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늘어지지도 않는, 걸음걸이조차 고운 자태를 지녔다고 사신은 생각했다. 골목을 돌고 돌아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나왔다. 마당 앞에 김 영감이 서성거리며 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화를 맞아 손을 꼬옥 부여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신이 멀리서 지켜보았다.

사신은 거처를 잡아놓은 곳으로 돌아왔다. 도화의 자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내일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벌써 아쉬워졌다. 자신의 나라에도 절세가인들이 여럿 있었지

만 도화는 어딘가 특별했다. 그 여럿 미인들도 출중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것을 더 돋보이게끔 하는 치장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들을 사신은 꿰뚫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도화는 달랐다. 도화는 순수한 미(美)를 지녔다. 청정 산속 버들잎위에 맺힌 이슬마냥, 노란 나비가 내려앉은 복사꽃의 향내마냥 깨끗하고 순수한 미(美)였다. 사신은 낮에 그렸던 도화의 그림을 꺼내 보았다. 한참이 부족했다. 그림 속의 도화는 그저 미모가 뛰어난 여인일 뿐 그 형용할 수 없는 느낌들이 서려있지가 않았다. 사신은 이대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한탄스러웠다.

“식사를 준비하라 이르겠습니다.”

통역관이 나가려하자 사신은 주모도 함께 들이라, 하였다. 사신은 도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이대로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듯 했다. 잠시 후 잘 차려진 밥상과 함께 주모가 들어왔다. 사신은 통역관을 통해 주모에게 도화에 대해 소상히 알려줄 것을 명했다.

통역관은 부지런히 주모의 말을 옮겼다. 도화는 김씨(氏) 성(姓)을 가진 마을 큰 어른의 여식이라 했다. 그 가문은 예부터 선비의 가문인데 조상대에는 변변한 벼슬을 하다가 선대부터 벼슬에 나가지 않고 그저 학문만 갈고 닦았다 했다. 그래서 도화의 어머니가 바느질이며 여러 마을 잡일들을 해주고 삿을 받아서 간소하게 살아갔다. 특히 그 둘 사이에서는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늦은 나이에 겨우 얻은 아이가 도화였다. 어머니는 출산한 해 겨울,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김 영감이 도화를 키웠는데, 저 혼자면 어찌되어도 좋겠지만 도화를 키워야 하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다. 그때부터 마을 나루터로 나와 일손을 도우며 조금씩 삿을 받아 아이를 키웠다. 김 영감은 학식이 높고 인품이 뛰어나 이미 그 때부터 마을 큰 어른으로 마을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마을의 사사로운 일들의 자문을 구할 때 김 영감을 찾았다. 때문에 나루터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주어 도화를 키우라 했으나 김 영감은 기어코 마을일을 도왔다. 그렇게 키운 도화가 어여쁘게 자라 그 미모에 온 마을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 나이가 노(老)하신 아버지를 대신에 나루터 일을 도왔다고 했다. 어린 여인이 하기엔 험한 일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으나 기어코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라 배웠기에 마을 사람들을 도와왔다고 했다. 덕분에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로 더욱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이라고. 도화는 천성이 온화하고 속이 깊은데다 인품 높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더욱 성숙하였다. 남녀노소 그 어느 누구도 도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도화 또한 그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 머리도 영특하여 나루터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김 영감 또한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글과 학문을 가르치며 마을의 대부(大父)가 되었다.

사신은 놀라웠다. 작은 마을의 평범한 여인이 빼어난 외모 뿐 만이 아니라 그 마음씨 또한 출중함에 감탄했다. 그 아버지의 성품을 고스란히 어린 딸이 빼다 박은 것이었다. 주모가 나가고 별로 음식이 당기지 않아 한 두 술을 뜨다말고 상을 물렸다. 통역관을 내보내고 자리를 깔고 누웠다. 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조선에 와 있었던 서른 날 정도가 그 여인을 본 후로 모두 뒤틀리고 있었다. 조선에 처음 도착해 여태까지 쌓아온 느낌들이 그 여인 하나로 흔들렸다. 조선이라는 곳이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라 각인되었다. 그 여인 하나로 온 마음에 물결이 일었다.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든 사신은 밝아온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먼 나라까지 도달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벌써 출발하기로 한 날에서 하루가 늦어졌으니 더욱 바빠 움직여야 했다. 짐을 챙기고 일행들을 데리고 나루터로 나갔다. 이른 시각인데도 나루터는 부지런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서 도화가 나루터로 걸어오고 있었다. 사신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때었다. 사공이 서서히 노를 젓기 시작하고 사신은 멀어지는 나루터에서 오가는 도화를 눈으로만 좇을 뿐이었다. 사신은 도화를 그린 그림을 품에 넣고 단단히 여몄다. 다시 볼 날을 기억할 수 없기에 그림 만으로라도 여인을 기억하고 싶었다.

보름 후, 마포의 나루터는 언제나처럼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도화는 아침 일찍이 나와 일손을 도왔다. 어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아침이었다. 해산물의 비릿한 바다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얼굴을 익힌 여러 지방 사람들이 오고가며 말을 걸어왔다. 완전한 봄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 강바람조차 따스하게 느껴졌다. 도화는 새파란 하늘 위에 맑은 뭉게구름 한 점이 흘러가는 것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지저귀는 산새소리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일렁였다. 오늘 아침은 조금 들뜬 기분이었다.

어김없이 많은 배들이 들어왔다. 많은 물건들을 내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올라탔다. 도화는 정신없이 드나드는 사람들 속에서 마을 어른들의 일을 도왔다. 점심때가 가까워 올 즈음 한 척의 배가 들어왔다. 독특한 행색이나 지체 높은 양반인 듯 기품 있어 보이는 남자를 중심으로 수행원들 같아 보이는 여러 사내들이 배에서 내렸다. 도화는 특이한 옷차림의 남자가 신기하여 저도 모르게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이쪽으로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도화의 앞에 둘러섰다.

“이름이 도화가 맞는가.”

“예. 저를 어찌 아시는지요?”

“이분께서 긴히 전할 말이 있으시다. 네 아비와 함께 들어야 할 말이니 집으로 앞장서거라.”

도화는 잠시 긴장을 하였으나, 이내 발걸음을 뗐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내들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나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다. 독특한 행색의 남자의 표정이 참으로 인자했기 때문이었다. 도화는 집으로 향하면서 저 남자는 분명 조선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행색이나 어딘가 생김새가 우리네 사람과는 조금 달라보였다.

“잠시 계시지요.”

집 앞에 다다르자 도화는 사내들을 앞에 세웠다. 아버지가 분명 놀랄 터이니 먼저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다. 도화가 안으로 들어가자 마을 아이들이 여럿 모여 글공부를 하고 있었다.

“도화야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 있느냐?”

“아버지 잠시 나와 보셔야 할 듯합니다.”

김 영감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 앞에는 여러 사내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시오. 여긴 타국에서 오신 사신이지요.”

“타국의 사신께서 이런 작은 마을의 외딴 곳 까진 어떤 일이신지요.”

“긴히 할 얘기가 있으시니 잠시 안으로 들어도 되겠소.”

김 영감이 안으로 들게 하자 사신과 통역관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마당에 서서 사방을 살폈다. 사신이 자리를 잡고 앉자 김 영감이 맞은편에 공손히 앉고 도화가 그 옆에 다소곳이 따라 앉았다.

“이 분은 먼 나라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지체 높은 분이시오. 이 조선 땅보다 훨씬 거대한 땅에서 오신 분이시. 오늘 이렇게 친히 여기까지 방문한 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예를 갖추고 진중하게 들어야 할 것이요.”

김 영감과 도화는 자세를 바로잡고 통역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사신이 제 나라말로 무어라 무어라 말을 하면 통역관이 조선말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사신의 입에서 요상한 말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역관이 받아 다시 말하길 한참이나 이어졌다.

김 영감과 도화는 순간 얼어붙어 그 어떤 반응도 낼 수가 없었다. 통역관의 입에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도화는 마음이 쿵쿵쿵쿵 뿔뿔이 하는 것을 느꼈다. 김 영감도 도화와 같은 마음인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사신과 통역관의 말이 모두 끝나고 네 사람 모두 일순간 침묵-이었다.

사신은 이 중대한 사안을 전하기 위해 험한 뱃길을 쉽 없이 한 달음에 달려왔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 영감과 도화의 표정을 보았지만 어떤 감정인 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사신은 충분히 이해했다. 저라도 아마 이와 같은 반응이 아니었을까, 가만 생각했다.

보름 전, 제 나라로 돌아간 사신은 곧바로 황제에게 나아가 인사를 올렸다. 조선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와 임금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전했다. 또 조선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소상히 전하고 조선에 대한 느낌과 분위기를 전했다. 여러 공식적인 보고를 마치고 물러나라, 하는데 사신은 잠시 뜸을 들이고는 도화이야기를 황제에게 전했다. 도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젊은 황제는 이 나라의 황후 감으로 도화라는 여인이 어떻겠느냐 물었고, 사신은 더할 나위 없이 그 자리에 꼭 맞는 여인이 될 것이라 답을 올렸다.

사신이 보름 만에 다시 조선을, 도화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사신은 기대와 걱정을 모두 안고 쉽 없이 달려왔다. 도화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선뜻 따라 나서주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함께 밀려왔다. 사실 얼른 기쁜 표정을 지어내지 못하는 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일개 평범한 여인이 한 나라의 황후가 된다는 것은 분명 경사가 날 일이다. 하지만 홀아비와 외동딸로 한 평생을 둘만이 의지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어찌 보면 너무도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김 영감은 기뻐다. 다만 한 없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날이 갈수록 자신의 수발이나 들고 있는 도화를 보며 좋은 짝을 찾아주어야겠다 생각해왔다. 그런데 단순히 형편이 넉넉하고 착한 사내 정도가 아닌, 한 나라의 황후자리라니, 분명 경사였다. 하지만 김 영감은 알 수 없는 서운한 감정에 휩싸여 쉬이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도화도 마찬가지이리라. 도화라면, 이 아이라면 어찌면 아버지를 위해 그 자리를 마다할 수도 있었다. 김 영감은 다짐했다. 흔들리지 않으리라. 평생을 홀아비 밑에서 외로이 자란 아이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외로울까 염려가 되오.”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그곳엔 나를 비롯해 많은 조선 사람들이 가 있소. 또 젊은 황제께선 참으로 다정한 분이시지. 우선 그곳 말이 낯설어 한 동안은 힘들 것이나 그것은 내가 옆에서 친히 가르쳐 줄 것이고, 또 황제께서 조금은 조선말을 하시니 어느 정도 위안은 될 것이오. 내가 조선 아이 중 하나를 여인의 시종으로 데려가도록 하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신에게 전해주시오.”

“맹세코 잘 보살피겠노라 약속하신다 하시네.”

김 영감의 힘 있는 대답에 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했다. 제가 어찌하여 황후자리에 간택된 일인지는 몰라도 너무도 허황된 일이라 생각했다. 그보다도 타국이라니. 타 지방이라 하여도 아버지를 두고는 절대 나서지 않을진대 타국은 가당치도 않았다.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안 되겠다 하시어요.”

“도화야.”

“예 아버지.”

도화는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을 외면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언제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였다.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생이별을 할 순 없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도화야 잘 듣거라. 나는 너무 늙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버릴지 알 수가 없어. 그 어느 날 내 마지막 날이 온다면 너를 홀로 둔 채로는 절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게야.”

아버지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부정하려 해도 이젠 아버지의 노(老)한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아버지의 쇠한 모습이 도화의 가슴속에 쑥 들어와 깊이 박혔다. 아버지의 주름 하나하나가, 구부정한 어깨와 야윈 팔 다리가 도화의 마음속을 사정없이 휘저어 찢어놓았다.

“그럼 저와 같이 가세요.”

“도화야.”

“아버지를 홀로 두고 가버릴 순 없어요.”

“나를 보아라. 도화야, 이 아비는 이젠 너무 늙어버렸구나. 더 이상 너에게 짐이 지을 수가 없다. 그 멀고먼 뱃길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네 어미가 여기 묻혀 있잖니. 그런데 내가 어딜 가겠어.”

도화의 깊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들이 치맛자락을 타고 떨어졌다. 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를 두고는 절대 가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평생을 저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오신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도화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세상은 봄빛으로 물들어 여인의 눈물방울조차 아름다운 얼룩으로 만들어주었다. 도화는 얼핏 잠이 들었다가 깼다. 밤새 아버지의 옆에 꼭 붙어 잠이 들지 않으려 애썼다. 잠이 들어 날이 얼른 밝아버리면 금세 아버지 곁을 떠나야 할 것만 같았다.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도화는 얼른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다.

“아버지, 아버지.”

“도화야 일어났느냐.”

김 영감이 부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도화가 달려들었다.

“아버지가 없어져버린 줄 알았어요.”

“다시 어린 아이가 된 것이냐, 어찌 이리 어리광을 부려.”

김 영감이 도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김 영감은 준비하던 아침상을 마저 차려 소반에 담아 나왔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차린 밥상에 도화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지려했다. 이제 저가 가버리면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렇게 홀로 밥을 차려 드셔야겠지, 하고 생각하니 어제 일이 꼭 꿈이었으면 좋으리라 생각했다.

김 영감은 이제 남은 일곱 날 동안 매일 아침상은 그 옛날 도화가 어렸을 때처럼 자신이 차려주리라 생각했다. 언젠가는 보내야 하는 것이고 도화는 잘 해내리라 믿었다. 도화의 태몽을 꾸던 날, 처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도화를 키우던 십여 년간이 폭포수가 떨어지듯 마음속을 훑고 지나갔다.

어느덧 일곱 날은 뒹겨진 화살이 날아가듯 꿈같이 빨리 지나가버렸다. 일곱 날 동안 생각할 여지를 주고 간 사신이 딱 일곱 날 쯤에 다시 김 영감네로 찾아왔다. 사신은 알고 있었다. 일

곱 날을 주지 않아도 결국 도화가 따라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 영감도 도화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도 극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김 영감은 어린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딸을 보낼 것이고, 어린 딸도화는 아버지가 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마음의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아 따라나설 것이었다. 사신은 이들이 애달팠다. 자신이 선불리 행한 일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 도화를 잘 보살피리라. 사신은 김 영감에게 했던 약속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리라 생각했다.

어느덧 봄의 정 가운데서 끝자락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길목에 서 있었다. 길바닥에는 떨어진 꽃잎들이 어지러이 펼쳐져있었다. 꽃잎들을 사뿐히 즈려 밟으며 생각했다.

‘뒷산의 복사꽃도, 이 마을의 복사꽃도 봄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어지러이 떠나가고 있구나.’

사신은 품속에 넣어온 선물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김 영감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랐다.

사신은 일꾼들에게 준비해 온 재물과 곡식들을 마당으로 들여 놓으라 명했다. 일꾼들이 지게를 지고 나르려 하자 김 영감이 뛰쳐나와 손사래를 쳤다.

“모두 도로 가져가시오.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니. 어찌 하나뿐인 딸자식을 고작 재물들과 바꾼단 말이오. 내 딸을 그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오. 내 가진 것 전부를 주는 것이니 부디 도화를 잘 보살펴주시오.”

김 영감이 마당으로 나와 옆드려 절하며 사신에게 부탁했다. 사신은 김 영감의 성품에 다시 한 번 감동하였다. 사신은 모든 재물들을 다시 물리고 같이 마당에 마주 앉아 김 영감을 일으켰다. 말이 통하지는 않으나 눈빛으로 둘은 교감했다. 사신은 눈으로 믿음을 주었고 김 영감은 그 의미를 느꼈다. 사신이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김 영감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신이 준비해 온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도화가 마당으로 나왔다. 김 영감은 애써 눈물을 참으려 입술에 힘을 주었다. 도화는 김 영감의 손을 꼬옥 부여잡았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마디라도 꺼내었다간 눈 속에 눈물을 가득 담아 서로의 얼굴을 선명히 담아내지 못할 것 같았다. 한참을 서로 바라보았다. 사신이 재촉하자 그제야 서로를 놓아주었다. 도화가 가마에 오르고 사신단의 행렬이 나루터를 향했다. 김 영감은 차마 따라나설 수가 없었다. 멀어져가는 행렬의 뒷머리를 바라보며 홀로 마당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사신이 주고 간 주머니가 흙바닥에 떨어지고 조그마한 복숭아 씨 두개가 흘러나왔다. 김 영감은 씨 두개를 움켜잡고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도화를 태운 가마와 사신단의 행렬은 금세 나루터에 닿았다. 나루터에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모여 있었다. 도화는 가마에서 내려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 손을 잡고 인사를 했다. 결국 눈물방울을 떨어트리며 홀로 계신 아버지를 잘 보살피 달라고 한 명 한 명에게 부탁했다. 도화가 배에 오르고 점점 강을 타고 멀어져갔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며 손을 흔들며주면서도 모두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김 영감은 마당 한 켠에 사신이 주고 간 복숭아씨를 심었다. 도화의 태몽을 꾸 날이 다시 떠올랐다. 정성스레 물을 주었다. 도화가 첫 걸을 떼던 때가 생각났다. 도화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죽는 그 날까지 이 나무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온 산천이 푸르고 바람결에 꽃나무들이 부르르 떨리면 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 향내는 온 마을을 휘감고 강바람들 타고 건넌 마을에까지 가 닿았다. 마을은 하얀 빛깔

위로 연분홍의 연지곤지를 여기저기 찍어 둔 복사꽃 벌판이 되어있었다. 봄이면 이 장관을 보러 일부러 배를 타고 이 마을까지 오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다. 복사나무는 그 열매처럼 꽃에서도 달큰하고 향긋한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갔다. 마을에는 길이 나 있는 모든 곳에는 복사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웅장한 복사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유일하게 길가가 아닌 어느 집 마당 한 켠에 심어진 것이었다. 그 나무를 중심으로 여러 복사나무들이 열을 맞춰 길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복사나무 숲이 되어 봄에는 향기에 취했고 여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탐스런 열매를 따다 온갖 음식에 넣어먹었다.

김 영감은 마당 한 쪽에 복숭아씨를 심은 그 날부터 그 언저리에서 한시도 떠나질 않았다. 새싹이 올라오는 것부터 키가 크고 가지가 나는 모든 일들을 모두 지켜보았다. 처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도화를 안아든 후 도화가 떠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을 함께 한 것처럼 김 영감은 이 복사나무가 자라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 정성스레 물을 주고 보듬어주었다. 나무가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질 즈음 이미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 있었다. 유달리 복사꽃의 향이 짙던 어느 날 김 영감은 복사나무에 기대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영감을 정성스레 장사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모두가 모여 온 마을에 복사꽃을 심었다. 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김 영감과 빼어난 미모와 성품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기억되는 도화를 위해서 빼곡히 나무를 심었다. 도화가 떠난 지 수년 후, 마을은 또다시 ‘도화(桃花)’로 유명해졌다. 전국 각지에서 이 마을의 복사꽃을 보러 봄이면 마을 구석구석 발디딜 틈이 없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마을을 ‘복사골’이라 부르며 구경을 왔다. 마을 사람들은 김 영감과 도화가 살았던 집을 그대로 두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나 복사나무가 크게 드리우고 있는 그 집은 도화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유명지가 되었다.

5월 단옷날이 다가올 즈음, 복사꽃은 만개하여 흐드러지게 장관을 이룬다. 그 향기는 온 집집마다 진하게 흔적을 남기고 흩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복사나무 아래서 거닐고, 아이들은 복사나무 앞으로 저들끼리의 놀이를 했다. 그 즈음, 많은 배가 들고 나가는 나루터에서는 뱃머리를 잡은 사람들의 안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굿판을 벌였다. 신명나는 굿판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의 덧붙였다. 작은 종이배를 만들어 그 안에 도화꽃잎을 가득 담아 한강에 띄우는 것이다. 온 마을에 도화(桃花)향기를 남기고 떠난 김 영감과 도화를 위해 작은 염원을 담아서.